

# 한국어 지소사의 문법화

이 성 하

## 1. 머리말

문법현상의 본질을 언어변화에서 규명해 보려 하는 문법화론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문법표지들이 어떠한 어원어로부터 출발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쳐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많은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지소사(축소접미사)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범언어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어의 지소사에 대하여는 일찍이 홍기문(1947)을 비롯하여 이승녕(1961), 허웅(1975) 등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지소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구본관(1999)에서는 현대한국어의 방언에 나타나는 지소사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적인 형태들을 밝혀 지소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지소사를 문법화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한국어의 문법화 현상이 범언어적 문법화 틀에 비교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범언어적 지소사 형태와 의미

비교언어학적으로 볼 때 지소사는 범언어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형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볼 때 언어의 형식들은 다양한 개별언어의 특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며 또한 의미적으로도 언어사용자들이 언어형식에 의미를 삭제 또는 첨가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소사는 형태면에서는 비음에 의한 실현 (Jakobson &

Waugh 1979), 음운반복에 의한 실현 (Moravcsik 1978, Mendoza 1998), 고성조에 의한 실현 (Jespersen 1922, Sapir 1915/1949, Ultan 1978, Ohala 1984, Nichols 1971), 또는 고전설모음이나 전설자음에 의한 실현 등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의미에 있어서는 ‘작음’이 가장 주된 의미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의미들, 즉 ‘자손’, ‘여성’, ‘근접’, ‘모방’, ‘주변성’, ‘미약함’, ‘정확함’, ‘개별화’, ‘부분’, ‘전형적 태도’, ‘동물신체부위’, ‘동물명’ 등의 의미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들로부터 다양한 담화적 기능들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완곡함’, ‘강조’, ‘경멸’, ‘애칭’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 3. 한국어의 지소사

한국어에 나타나는 지소사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범언어적 경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어 지소사의 형태와 의미를 일괄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의미가 어떠한 문법화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지소사의 형태

한국어의 지소사 형태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입장을 취해 왔다. 무엇보다도 그 형태가 다양하고 방언에 따라서도 많은 변이형들이 있어서 일관된 기술이 어려웠던 점이 그동안 지소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아지’와 ‘-아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아기, -앙이, -생이, -아미, -아귀, -옹이, -오리, -우리, -댕이, -사귀, -어지, -억지, -영, -영이, -맹이, -앙이, -개비, -짜기’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은 범방언적으로 살펴볼 때 더욱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잎’의 지소파생형태라 할 수 있다.<sup>1)</sup>

1) 여기의 예들은 한글학회(1996[1992])의 「우리말 큰사전」을 참조한 것이다.

(1)	이파구	이파귀	이파기	이파리	이퍼리
	입사	입새기	입생기	입생이	입싸기
	입파리	입퍼리	입쌍	입사	입사구
	입사구이	입사귀	입사기	입삭	입상구
	입상귀	입새	입새기	입생기	입생이
	입싸구	입싸구	입쌍		

위의 예들은 모두 현대 한국어의 방언에서 발견되는 것들로서 이들을 형태면에서 잘 살펴보면 그 지소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 ㄱ. ‘-아기’형

입사귀	입쌍	입사구	이파귀	이파구
입삭	입사기	입사구이	입상기	입상귀
입상구	입새기	입싸구	입싸구	입삭
입상귀	입새기	입싸기		

ㄴ. ‘-앙이’형

입쌍	입상이	입상기	입상귀	입상구
입상귀	입생이	입생기		

ㄷ. ‘-아리’형

이파리	입파리	이퍼리	입퍼리
-----	-----	-----	-----

위의 유형 중에는 특히 ‘-앙이’형에 속하는 형태들이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표지들이 중첩되어 사용되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유형화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소사의 형태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원형적인 지소사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구본관(1998, 1999)에서는 ‘-아지’가 ‘가지’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승녕(1961)에서는 ‘앙/영/ㅇ’ 등의 관형형 접미사를 상정하여 ‘송아지’ ‘몽아지’ 등이 ‘-아지’계에 속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리, -아리’의 형성에 관하여 구본관(1999)에서는 ‘ㄱ

(g) > ɔ(ŋ)'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실제로 이와 같은 비음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이어서 일관성 원리로 보아 그 관련성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아지'와 '아기'의 상관성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g]가 전설 고모음인 [i] 앞에서 구개음화되어 [j]로 변화하는 예도 범언어적으로 이미 나타난 변화이다. 예를 들어 Pre-Sanskrit어에서는 \*gegome > \*gygome > \*gyagāma > jagāma 'went'의 변화를 보였다 (Hock 1991: 74). 이점을 고려해 보면 '-아기'와 '-아지'의 관련성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전의 논의들을 참고할 때 위의 세 가지 유형은 다시 두 가지 즉 '-아기'형과 '-아리'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두 가지를 한국어 지소사의 원형적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기'는 그와 역사적 관련성을 보이는 어휘형태로 '아기'를 설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3)</sup> 사실상 중세와 근대 한국어에서는 '-아기'가 현재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용된 것이 역사적으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막아지, 못아기, 쇠아지, 스라기, 악, 존아기' 등이 어원적으로 '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리'에 관하여는 그 어원을 '알'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것은 범언어적으로 볼 때, 애정을 가지고 상대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이른바 '애칭표시 (hypocoristic marker)'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알'과 '-이'의 결합이 '-아리'를 생성시켰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애칭은

2) 여기에서는 '손바당/손바닥, 두덩/두덕, 베투/베락, 꼬더기/꼬덩이' 등의 대응예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아기/아지'의 원형태로 '아기'를 상정할 경우 한 가지 문제는 '압>아비>아버지', '하나비>할아버지'의 경우에 사용된 '-어지'의 의미를 '아기'와 관련짓기가 일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페인어의 경우 *papa>papacito*, *mama>mamacita*, 영어의 경우 *dad>daddy*, *mom>mommy* 등을 사용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언어에서 부모의 호칭에도 친근칭으로 바꿀 때 축소접미사를 쓰기도 한다. 그것은 축소접미사가 애정을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지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영어에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my cute little daddy'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비+아기'의 조합은 부자연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이 어원문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름이나 호칭에서 잘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영어에서 John/Johnnie, Bob/Bobby, Ted/Teddy, Beth/Betty, Dad/Daddy, Mom/Mommy 등의 대응쌍은 애칭표지 [-i]의 사용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어에서도 사람의 이름은 다른 보통명사와 달리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일 경우 [-i]를 삽입하여 ‘창숙’을 ‘창숙이’, ‘현정’을 ‘현정이’라 하는 현상들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반명사 ‘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눈/눈알, 총/총알, 쌀/쌀알, 밥/밥알, 콩/콩알’ 합성어들이 있는 것도 ‘알’의 단어파생상 생산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알’이 그 의미상으로 ‘작음’을 나타내는 지소사의 의미적 성격과 잘 부합되는 것도 ‘알’을 원형으로 설정하는 데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지소사 표지의 어원을 ‘아기’와 ‘알’로 상정하게 될 경우 범언어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알’이 지소사 표지로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Jurafsky (1988), 아프리카어의 Heine et al. (1991), 범언어적인 Jurafsky (1996)에서는 모두 ‘small/child’를 그 원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 3.2 지소사의 의미

한국어의 지소사는 그 형태의 다양함과 더불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2.1 자손

지소사 ‘-아기’와 ‘-아지’가 일반 명사 ‘아기’에서 발달한 것으로 볼 때 지소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가 ‘자손’ 또는 짐승의 경우 ‘새끼’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리’도 ‘알’로부터 발달하였으므로 동물, 특히 난생동물의 경우에는 ‘-아리’가

4) Matisoff (1991)에서는 태국어의 lûuk이 ‘child’로부터 ‘dependent/derived thing’을 거쳐 ‘fruit’와 ‘round thing’으로 확장된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형적으로 ‘child/small’을 상정하는 것은 다른 언어들과 공통이다.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알’이 명사 어휘적 의미 ‘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태에 따라 은유적으로 ‘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아리’에 의해 단어가 파생되는 예는 굳이 동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ㄱ. 송아지 (<소 )
- ㄴ. 망아지 (<말 )
- ㄷ. 병아리 (<비육) (구본관 1999: 127)

이러한 ‘자손/새끼(offspring)’의 의미는 범언어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지소사의 의미이다.

### 3.2.2 작음

지소사의 의미 중 ‘작음’을 뜻하는 것은 지소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볼 수 있다.

- (4)   ㄱ. 고랑 (<골)                                   ㄴ. 돌맹이 (<돌)
- ㄷ. 알맹이 (<알)                               ㄹ. 꼬랭이 (<꼬리)
- ㅁ. 뿌렁이/뿌랭이 (<뿌리)   ㅂ. 호맹이 (<호미)
- ㅅ. 도랑/또랑 (<둑)                           ㅇ. 싹아지 (<싹)

### 3.2.3 모방

다음으로 지소사의 의미로 들 수 있는 것은 ‘모방’의 의미이다. 이 ‘모방’의 의미는 범언어적으로 ‘근접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의 지소사에 의한 파생과정에서는 ‘근접성’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근접성’은 ‘따뜻함-미지근함’, ‘신-시큼한’ 등과 같이 자질의 근접을 나타내는 데 비해 여기에서의 ‘모방’은 외관상의 유사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인 크기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가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모방’의 예이다.

- (5) 가락 [손가락, 젓가락, 국수가락 등] (<갈래)

### 3.2.4 미약함

지소사가 ‘자손’ ‘작음’ 등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미약함’ 또는 ‘중요하지 않음’ 등의 의미를 쉽게 파생시킨다. 한국어의 경우 많은 명사들이 지소사 파생에 의해 중요성의 위계상 강등되는 의미를 가지는 예들이 많이 있다.

- |                  |              |
|------------------|--------------|
| (6) ㄱ. 배때기 (< 배) | ㄴ. 등때기 (< 등) |
| ㄷ. 코빼기 (< 코)     | ㄷ. 애송이 (< 애) |
| ㄹ. 귀때기 (< 귀)     | ㅂ. 불때기 (< 불) |
| ㅅ. 다리깅이 (< 다리)   | ㅇ. 뺨때기 (< 뺨) |

### 3.2.5 정확함

지소사의 의미 중 특이한 한 가지 유형은 ‘정확함’이다. 대개의 경우 지소사에 의한 파생의미는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의미 이동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은 특이한 예로 생각된다.<sup>5)</sup> 그러나 이들의 일부는 파생형만 현존하고 있어서 파생전 어기인 어원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 |                   |              |
|-------------------|--------------|
| (7) ㄱ. 줄거리 (< 줄기) | ㄴ. 수냉이 (< 순) |
| ㄷ. 고갱이 (< ?)      | ㄷ. 응어리 (< ?) |

### 3.2.6 개별화

지소사의 또 다른 의미로 ‘개별화(individuation)’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범언어적으로는 대개 집합명사의 개별적인 구성원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추상적인 동사 또는 명사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실

5) 이러한 유의 의미파생 기제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현된 가시물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소사 용법으로 예를 들어 ‘모래-모래알’, ‘친족관계-친척(사람)’ 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발견된다.

- (8)    ㄱ. 귀머거리 (< 귀먹-)      ㄴ. 주먹 (< 쥐-)  
       ㄷ. 나머지 (< 남-)            ㄷ. 부스러기 (< 부스러지-)  
       ㄹ. 쭈그러기 (< 쭈그러지-)    ㅂ. 쪽정이 (< 쭈그러지-)  
       ㅅ. 이파리/잎사귀 (< 잎)      ㅅ. 공이 (< 고)<sup>6)</sup>  
       ㅈ. 웃음가마리 (< 웃-)        ㅈ. 터럭 (< 털)  
       ㅊ. 꼬댕이 (< 끝)            ㅊ. 고장 (< 곳)  
       ㅋ. 기둥/기둥 (< 긴)         ㅋ. 꼬라지 (< 꼴)

### 3.2.7 부분

지소사의 또 다른 의미는 ‘작음’과 관련되어 파생된 것으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대개 ‘눈-눈동자’ 또는 ‘다리-발가락’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나타난다.

- (9)    ㄱ. 싸라기 (< 쌀)      ㄴ. 꼬트러기 (< 끝)  
       ㄷ. 옆댕이 (< 옆)      ㄷ. 몸뚱이/몸뚱아리 (< 몸)<sup>7)</sup>  
       ㄹ. 뽕댕이 (< 꼬리)    ㅂ. 꼭댕이/꼭다리 (< 꼭대기 < 꼭지?)

6) 박홍길(1997: 72-76)에서는 ‘고>공이, 곳>고장, 골>고랑, 곧>구덩이, 긴>기둥/기둥’ 등의 예를 “뒷가지의 붙음에 의한 낱말의 길어지기”의 예로 들고 이런 현상은 의미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일종의 강화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양/영/웅/웅(이)} 등의 구체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이 “강화현상”은 구체화 또는 개별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7) 여기의 일부 예에서와 같이 지소사가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말을 파생시킬 경우에는 신체부위의 작은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며 때로는 해당 부위에 대해 ‘미약함’의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 경멸적인 표현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몸뚱이’는 ‘신체’라는 말의 경멸적인 표현 또는 ‘몸통(torso)’ 부위를 가리키는 말로 모두 쓰임이 가능하다.



## 3.2.8 동물신체부위

한국어의 지소사의 용법 중 특이할 만한 것은 많은 ‘동물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지소사 접미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소사에 의한 파생 이전에 분명한 어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때로는 어기로 사용되었던 어원이 공식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                   |
|------------------------|-------------------|
| (10) ㄱ. 새끼 ([人] 아기/아기) | ㄴ. 대가리 ([人] 머리)   |
| ㄷ. 모가지/머가지 (([人] 목)    | ㄷ. 가죽 ([人] 갖, 살갓) |
| ㄹ. 볼때기 ([人] 볼)         | ㅂ. 눈깔 ([人] 눈)     |
| ㅅ. 주둥이/주둥이/주둥아리([人] 입) | ㅇ. 코뿔뿔 ([人] 코)    |
| ㅈ. 배때기/배때지 ([人] 배)     | ㅊ. 이빨 ([人] 이)     |
| ㅋ. 턱아지/턱아지 ([人] 턱)     | ㅌ. 등때기 ([人] 등)    |

## 3.2.9 동물명

지소사의 용법 중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동물의 신체부위 표지 명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명들 또한 지소사 표지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들은 파생된 형태 이전의 동물명과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sup>8)</sup>

- |                      |               |
|----------------------|---------------|
| (11) ㄱ. 돼지 (< 돌/똥)   | ㄴ. 토끼 (< 토끼)  |
| ㄷ. 개고락지/개구락지 (< 개구리) | ㄷ. 염생이 (< 염소) |
| ㄹ. 미꾸라지/미꾸라지 (< 미꾸리) | ㅂ. 버러지 (< 벌레) |
| ㅅ. 메추라기 (< 메추리)      | ㅇ. 새끼 (< 새우)  |
| ㅈ. 구구락지 (< 구구리)      |               |

## 3.3 한국어 지소사체계의 범언어적 의미

지금까지 한국어에 나타나는 지소사의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를

8) 이들 중 일부의 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국어학회 (2000)의 전남 강진군 방언조사 제 6차 학술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어의 지소사 체계를 범언어적 체계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범언어적으로 볼 때 지소사 체계는 그 의미 기능상 의미에 있어서는 ‘작음’이 가장 주된 의미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Jurafsky (1996)에서는 ‘자손’과 ‘작음’을 의미상 핵심의미로 두고 이로부터 ‘여성’, ‘근접’, ‘부분’, ‘정확함’, ‘구성원’, ‘작은 유형’, ‘관련성’, ‘모방’ 등의 의미로 확장이 되었으며, 화용적으로는 ‘애정’, ‘애완동물’, ‘동정’, ‘친숙함’, ‘경멸’, ‘완곡표현’ 등의 기능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한국어의 경우를 이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요약 언급할 수 있다.

(12) ㄱ. 범언어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의 지소사 어원은 ‘작음’ 또는 ‘자손’뿐 아니라 ‘알’을 가지고 있어 복수 어원을 갖고 있다.

ㄴ. 범언어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소사의 의미기능은, ‘자손’, ‘작음’, ‘모방’, ‘미약함’, ‘정확함’, ‘개별화’, ‘부분’ 등을 들 수 있다.

ㄷ. 범언어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에 나타나지 않는 지소사의 의미기능은 ‘여성’, ‘근접’, ‘주변성’, ‘전형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ㄹ. 범언어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지소사의 의미기능은 ‘동물신체부위’, ‘동물명’이 있다.

#### 4. 한국어 지소사의 문법화

지금까지 한국어의 여러 가지 지소사 의미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의미기능들이 어떠한 문법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4.1 은유

문법화 과정에 작용되는 여러 가지 기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은유이다. 그것은 은유가 인간의 인식 세계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인식활동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 1980). 한국어의 지소사 의미 파생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은유가 기제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4.1.1 ‘아이’ > ‘작음’

인간의 기본적인 세상사적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생명체는 그 자손이 크기에 있어 그 부모보다 작다는 것이다. 물론 신체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손-부모의 관계는 엄격한 신체적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계통적 생물학적 계보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로부터 ‘작음’의 파생관계는 일종의 은유로서 ‘계보는 크기이다 (GENEALOGY IS SIZE)’라는 은유에 기초하고 계보상의 부모의 크기는 자손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은유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 4.1.2 ‘작음’ > ‘미약함’

‘작음’이라는 기본 개념으로부터 ‘미약함’이라는 파생개념으로의 의미적 확장은 ‘힘은 크기이다 (POWER IS SIZE)’라는 은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힘의 강약을 크기의 차원에 사상시킴으로서 크기상으로 작은 것은 강도상으로도 약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은유는 우리의 세상사적 지식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어서 별도의 은유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센 힘’ ‘약한 힘’을 ‘큰 힘’ ‘작은 힘’이라고 하는 데에 별다른 영역 전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 4.1.3 ‘알’ > ‘개별화’

‘알’은 기본적으로 계란이나 오리알처럼 동물의 재생산 세포를 가리키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지소사의 의미적 문법화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들이 단순히 동물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생물의 경우예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물의 일반적인 형태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파생된 명사가 대개 둥근 모양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쌀>쌀알’, ‘밥>밥알’, ‘콩>콩알’, ‘눈>눈알’ 등의 지소 파생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파생형이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알’이 생물체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배>배알[창자]’의 파생 정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태적 유사성 또는 장소적 유사성이 은유적으로 다른 영역에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1.4 ‘작음’ > ‘정확함’

‘작음’의 의미로부터 ‘정확함’의 의미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크기상의 차원으로부터, 중앙에는 핵심성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비례적으로 주변성이 위치한 일종의 구심적 차원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크기상의 감소는 핵심성으로의 접근과 같은 것이 되며 따라서 작은 것은 정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순’이 ‘수냉이’가 될 경우 식물의 순 중에서 가장 끝 부분을 지칭하게 되고 ‘고갱이’나 ‘줄거리’도 각 해당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속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 4.1.5 ‘작음’ > ‘동물’

‘작음’으로부터 ‘동물’로의 은유적 전이는 신체적 크기의 차원으로부터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차원에서의 전이현상이다. 실제 세계에서 인간보다 훨씬 큰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이기 때문에 핵심에는 인간이 있고 그 주변에는 중요성상 덜 중요한 기타의 동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되고 동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작음’으로부터 ‘동물’이라는 새로운 의미기능이 발전된 것이다.

#### 4.1.6 ‘작음’ > ‘부분’

‘작음’에서 ‘부분’으로의 전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은유로 보인다.

그것은 ‘작음’이 대개 ‘자손/아기’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은유적 전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작음’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크기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은 것은 더 큰 온전한 것의 일부라는 새로운 인식적 차원에서 본 것이기 때문이다.

## 4.2 환유

지금까지 지소사의 은유에 의한 의미 파생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환유에 의해 문법화된 의미 파생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환유는 Traugott & Heine (1991)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문법화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문법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유가 단순한 물리적인 인접성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인식적인 인접성 즉 담화화용적인 면에서의 인접성을 가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문맥에 따른 화용적 추론들이 문법화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화용적 추론에 의한 환유적 문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 4.2.1 ‘모방’ > ‘미약함’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방한 것은 모방된 것보다 그 중요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방’이란 말은 ‘거짓’ 또는 ‘열등함’ ‘미약함’이란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의미파생은 화용적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가. A는 B의 모방이다.  
 나. A는 B만큼 좋지 않다.  
 다. A는 B 범주의 주변적인 미약한 구성원이다.  
 르. A는 미약하다.

## 4.2.2 ‘미약함’ &gt; ‘경멸’

‘미약함’의 의미로부터 ‘경멸’로의 의미 확장은 인간의 실용적 태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작음’이라는 크기상의 판단이 ‘유용성’이라는 차원으로 사상된 일종의 은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것은 미약한 것으로, 미약한 것은 유용성상 덜 좋은 것으로, 유용성상 덜 좋은 것은 경멸받을 만한 것으로 순차적인 전이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계적인 추론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 ㄱ. A는 작다.  
 ㄴ. A는 약하다.  
 ㄷ. A는 유용하지 못하다.  
 ㄹ. A는 바람직하지 않다.  
 ㅁ. A는 경멸받을 만 하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지소사의 형태와 의미기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기능들이 문법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국어의 지소사 체계는 공통점과 더불어 몇 가지 특이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아기’와 ‘알’의 복수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타 언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의미기능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동물의 신체부위’ 또는 ‘동물명’ 등에 지소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지소사 체계가 문법화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에는 은유와 환유, 즉 인식적 영역의 이동과 담화화용적인 추론이 관계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발견은 문법화과정은 인간의 담화적 추론의 한계에 종속한다는 기존의 학설과 잘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구본관 (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 국어학회
- 구본관 (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109-141.
- 박홍길 (1998) 『어휘변화의 원인별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승녕 (1961) 『국어조어론고』 서울: 을유문화사.
- 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국어학회 (2000) 『제 6차 학술조사보고서. 전남 강진군 방언조사 - 움천면 봉림리 중심으로-』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국어학회.
-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 홍기문 (1947) 『조선문법연구』 고영근·하동호 편, 한국역대문법대계 1-39.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ck, Hans Henrich. 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2nd ed.)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Jakobson, Roman & Linda R. Waugh. 1979. The Sound Shape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tto. 1922. Language. London: Allen & Unwin.
- Jurafsky, Daniel. 1988. On the semantics of the Cantonese changed tone. BLS 14: 304-318.
- Jurafsky, Daniel. 1996. Universal tendencies in the semantics of the diminutive. Language 72.3: 533-578.
- Lakoff, George &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isoff, James A. 1991. The mother of all morphemes: Augmentatives and diminutives in areal and universal perspective. In Ratliff, Martha and Eric Schiller (eds.) Papers from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 Asian Linguistic Society, Tempe, AZ: 293-349.
- Mendoza, Martha. 1998.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Spanish

- Diminutive: Metaphorical Projections of Siz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oravcsik, Edith. 1978. Reduplicative constructions. In Greenberg, Joseph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4 vol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 297-334.
- Nichols, Johanna. 1971. Diminutive consonant symbolism in western North America. *Language* 47: 826-848.
- Ohala, John J. 1984. An ethological perspective on common cross-language utilization of F0 of voice. *Phonetica* 41: 1-16.
- Sapir, Edward. 1915[1949]. Abnormal types of speech in Nootka. *Selected Writings*. ed. by D. G. Mandelbaum. 179-19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raugott, Elizabeth & Bernd Heine. 1991. Introduction. In Traugott, Elizabeth &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Amsterdam: John Benjamins.
- Ulan, Russell. 1978. Size-sound symbolism. In Greenberg, Joseph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4 vols. 2: 525-568.



## Abstract

## Grammaticalization of Diminutives in Korean

Seongha Rhee

Grammaticalization theory has shown interest in exploring and identifying the paths taken by the grammatical items in the course of their acquiring grammatical functions and meanings. In the same research tradition,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grammaticalization paths taken by the diminutive forms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From comparisons with diminutive forms in other languages, it is shown that Korean diminutives share certain properties with diminutives in other languages, as well as certain language-specific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Korean diminutive forms seem to have evolved from multiple sources such as *aki* 'child' and *al* 'egg', the former being cross-linguistically common, while the latter being seemingly idiosyncrasy of the Korean language. Furthermore, there are certain areas where other languages rarely show usages of diminutives such as animal body part terms or animal names.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cross-linguistically common functions are not attested in Korean, e.g., female, proximity, peripherality, and typical behavior.

It is also shown that the grammaticalization phenomena of the Korean diminutives made use of various mechanisms such as metaphor and metonymy, i.e. conceptual domain shifts and pragmatically induced inferences. This is in consonance with the recurrently attested findings that grammaticalization phenomena are largely subject to the limit of human inferences in discourse.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조교수 / E-mail : srhee@hufs.ac.kr